

건강 칼럼

해외 유입 '빨간불 홍역!' ... 똑똑하게 관리하기

홍역은 '몹시 앓을 먹거나 어려움을 겪다.'는 뜻의 '홍역을 치르다'라는 관용어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임을 인증받았지만, 올해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왜 아직도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까? 함께 알아보자.

▲홍역의 개념 및 진단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홍역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늦은 겨울부터 봄에 온대 지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에 의해 공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홍역바이러스는 환자가 있던 장소를 떠난 후에도 2시간까지 공기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전염력은 발진이 발생하기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있어서, 홍역으로 진단되기 전에도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 또한, 홍역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산모가 감염되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전염되어서 선천성 홍역을 일으킬 수 있다. 홍역의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까지로, 평균 10



최영득
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위원장

일에서 12일까지이다. 특징적인 증상은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 구진의 융합성 발진 및 질병 특유의 점막진 등이며, 그 외 증상으로 설사나 중이염, 기관지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확진을 위해서는 의심 환자의 인후나 비강에서 바이러스나 특이유전자를 검출하여 진단하거나 혈액에서 급성 항체 또는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홍역 퇴치 유지 국가
홍역에 대한 치료약은 없으며, 전염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격리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제로 발열 조절을 하고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 회복을 보이나, 일부에서는 감염 후 호흡기 및 신경학

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심한 폐렴이나 뇌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 때문에 퇴치 선언 이후에도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을 통하여 국내 여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442명이 해외유입 홍역에 걸렸고, 이후에는 2015년 7명, 2016년 18명 2017년에는 7명의 해외유입 감염이 보고되었다.
▲홍역의 2차 전파
홍역의 해외 유입 환자는 병원에서 2차 전파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연령에서 미접종자, 면역 수준 감소로 학교 등에서 유행이 발생할 수 있고, 질병 증상이 경미하여 진단이 지연되고 격리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환자 발견 지연에 따라 유행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유행하는 해외 유입 홍역도

홍역 환자가 모 병원 응급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홍역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진이 나타나는 4일까지 호흡기 격리를 해야 한다.
▲홍역의 올바른 예방법
예방접종은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홍역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면 홍역 질환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홍역이 유행할 때는 만 4세 이전이라도 1차 접종과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MMR 백신을 적어도 1회 접종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 직업교육원생, 의료종사자 및 해외여행자(특히 유럽과 동남아 여행)는 1차 접종과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안정적 실시로 홍역은 퇴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해외 유입 홍역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유입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홍역의 국내 전파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제언

즐거운 봄 나들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법

봄꽃 축제와 체험학습 등 봄을 만끽하려는 단체관광객이 집중되는 4월이 시작됐다. 주말 고속도로를 보면 야외활동으로 많은 차량들의 이동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이동이 많은 만큼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장거리 이동 전 차량정비를 꼼꼼히 하자.
방향지시등의 정상작동 여부와 냉각수,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점검을 꼭 해야 한다. 둘째, 여행지의 지리특성을 미리 파악하자.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 주유소, 휴게소 등을 미리 파악해 두어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 셋째,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자. 안전띠는 교통사고에서 탑승자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이다. 넷째, 졸리면 휴식을 취하자. 고속도로에서는 눈 깜빡 할 사이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졸음이 온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작은 배려와 여유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길이 되었으면 한다. 최혜진 고령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알제리 시위대 '물러날 수 없다'



9일(현지시간)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시위대는 알제리 의회가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압델카데르 벤살라 상원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했으나 임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그의 퇴진과 빠른 정치 시스템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사설

젊은이 유출 문제 일자리가 답이다

전북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보이나 하는 말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였다. 그런데 그게 그뿐이니 허망하다.도내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두운 것 천지다.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인데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고용률 또한 전국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실업수령하는 자 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지 싶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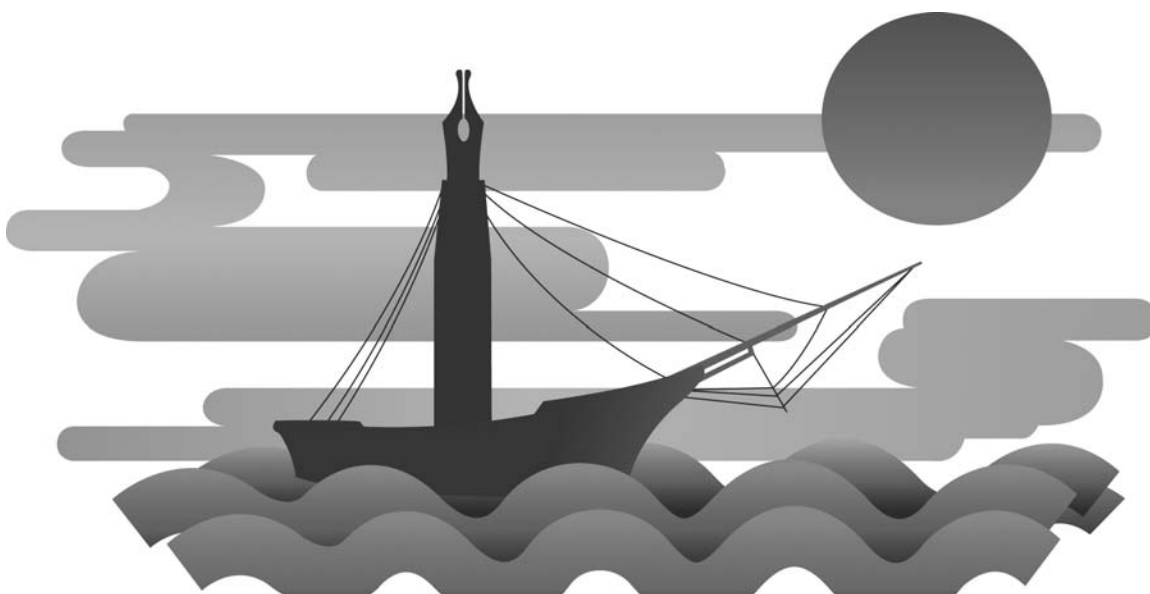
둔하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도내 언론사들의 보도를 심상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집 보따리를 싸고 있다는 것을 통기사로 내보내는 것 말이다. 오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언급했거니와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다 오 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밀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군산시와 각 지자체는 실업자 증가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전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은 전북도가 발 벗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을 터이다.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저출산 문제 대책이 있는가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0년간 출생통계를 조사한 것이 저번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을 다시 풀이해 보는 마음이 답답하다. 아직도 나아진 것이 전무한 까닭이다. 출생률이 가장 저조했다는 1995년도와 비교해도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당국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뒤흔트려 놓고 싶고, 도민들 앞에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싶다.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하는 것을 보면 무대책이니 말이다.
전북도는 지난 날 거듭해서 발표했던 말들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한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를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후 감감 무소식이다.
정말이지 이래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이 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전북도는 조용한 상태 그대로라 비교가 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보통 일로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모색이 필요한 오늘날이다. 아이 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거주 인구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지금 고민해야만 한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전북도는 저출산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